

당도 높은 자색 양파 ‘황수옥’

이현주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064)760-7243

세계3대 채소 중 하나인 양파는, 최근 소비성향의 다양화로 유색품종을 찾는 소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 육성 품종이 매우 적고, 대부분 수입 종자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3년부터 자색양파 품종 육성에 착수하였고, 2019년 ‘황수옥’을 육성하였다.



○ 자색양파 ‘황수옥’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황수옥’ 품종은 수집된 계통을 수년간 분리 고정된 후, 2003년 JM28계통을 모본(♀)으로 하고, JM29계통을 부본(♂)으로 교배하였다. 교배된 F1은 모본(JM28)에 역교배한 후 2005년 우수계통을 확정하였다. 2006년 부터 2008년 까지 생산력 검정시험을 거쳐 2011년 12월 ‘황수옥’으로 명명하였다. 최근 2019년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하였다.

○ 당도가 높아 즙용으로 알맞은 품종

자색 양파 ‘황수옥’은 11월 중순에 정식해서 이듬해 5~6월 수확하는 만생종이다. 구의 모양은 원형으로 균일하며, 외피색은 짙은 자색을 띤다. 당도는 대비품종인 ‘천주적’(8.29°Bx)과 비교하여 9.15°Bx로 높고, 수분함량도 92.8%로 높아 즙용으로 알맞은 품종이다.

○ 추대와 분구가 적고, 흑색썩음병에 강하여 수량성 우수

추대율 0.2%, 분구율 1.5%으로 추대와 분구가 극히 적고, 생산력 검정시험 결과 10a 당 평균 상품수량도 6,664kg로 많아 수량성이 우수한 품종이다. 또한, 내한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양파에서 문제가 되는 흑색썩음균핵병에 강한 특성이 있다.

○ 이런 점은 다소 주의!!

일반적으로 만생종은 저장성이 뛰어나지만 ‘황수옥’의 경우,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장기 저장이 쉽지 않다. 따라서 저장 시 바람이 잘 통하도록 습도 관리가 필요하다.



‘황수옥’ 모습